정보통신사업관련 실태조사 착수

체신부의 재정지원하에 데이터베이스목록 작성과 정보통신사업 실태조사에 착수한 협회는 최근 15명의 전담조사원을 투입,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DB산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DB목록 작성은 국내 2백50여 DB구축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사업내용과 DB구축 방법 등을 조사, 오는 7월경 목록이 발간된다.

이와 병행추진되는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역시 국내 정보통신관련 1백50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 이들 업체의 사업내용과 매출규모, 장단기 사업계획 등을 조사해 오는 7월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협회는 향후 이 조사결과를 계속 보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용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 기술개발자금 지원과제 설명회 개최

협회는 지난달 22일 오전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91년도 체신부 기술개발자금 지원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체신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과제중 DB. VAN분야 등 8개 기술개발과제의 관리를 맡게된 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과제의 세부내용과 과제수행에 따른 계획서 제출 등 제반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번 체신부의 자금지원은 각 업체 및 단체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일괄 접수하고, 협회는 이들 계획서중 협회가 주관 관리하게 되는 정보통신산업 통계DB 개발등 8개과제를 심의, 그 결과를 체신부에 제출하고, 체신부가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에 관한 워크숍 개최

협회는 정부가 오는 '92년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전기통신관계법규 개정안 설명회를 지난 4월20일 데이콤빌딩 15층 강당에서 개최한데 이어 5월9일부터 이틀간 수원 그린피아리조텔에서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천조운 체신부 통신기획과장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와 협회 법제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간업계 의견을 종합 정리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검토된 의견과 설명회 개최결과를 종합정리한 대정부 건의서를 체신부 당국에 제출했다.

APEC 통신분야회의 참관

EDI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EDI의 조기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는 지난 5월28일부터 이틀간 일본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APEC(아

• 태경제협력기구)의 통신분야 회의에 협회측 대표로 EDI담당팀(팀장 송광호 대리) 2명을 파견했다.

체신부와 통신개발연구원, 한국통신, 한국데이타통신 등의 실무자들과 함께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EDI담당팀은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 EDI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뉴질랜드의 제안과 미•일의 EDI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이번 APEC통신분야회의는 태평양연안 국가간 보다 효율적인 EDI구현을 위해 오는 6월과 8월 두차례 회의를 더 갖고 구체적인 EDI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4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개최

협회는 제4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오는 6월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원 시민회관에서 "정보화사회 자유토론광장"행사를 개최한다.

협회가 정보화사회의 구현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홍식 체신부 정보통신국장을 비롯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게 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6월 제주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근 지역단위의 홍보와 현지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교육용PC 구매방안 의견수렴

최근 협회는 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교육용PC의 적정가격과 바람직한 구매방법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국내 PC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가 PC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중 8개사를 대상으로 간이조사한 결과 교육용 PC의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업체들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이 밝힌 교육용 16비트 PC의 XT급과 AT급의 원가책정액을 보면 S기업이 58만3천원과 1백58만4천원을, D기업이 46만원과 87만3천원을, 그리고 J업체가 71만7천원과 1백66만6천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가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 배분공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이에 대해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보호•육성은 물론 개발의욕 고취와 이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교육용PC의 수요기관인 교육부와 한국통신은 이를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전체 수급물량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I월드」창간

효율적인 정보통신 수단으로 EDI구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전문잡지로는 국내 최초인 계간 「EDI월드」지 창간호가 6월 선보인다.

협회는 산하 EDI연구협의회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문지 발행을 추진, 최근 관계당국에 등록을 끝내고 「EDI월드」창간호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4•6배판 5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될 동서는 국내외 EDI 구축현황과 기술, 표준화 동향, 국제기구의 활동 등 이 분야의 전문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협회는 이 책자가 독자들의 인식제고는 물론 국내 EDI의 조기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